

Northumbria Research Link

Citation: Kim, Chang Sung and Seo, Kyung Wook (2012) An Application of Basil Bernstein Theory to the Analysis of Museum Spa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40). pp. 29-36. ISSN 1738-818X

Published by: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URL: http://www.auric.or.kr/dordocs/preview_rdoc.asp?re...<http://www.auric.or.kr/dordocs/preview_rdoc.asp?returnVal=RD_R&dn=292934>

This version was downloaded from Northumbria Research Link:
<https://nrl.northumbria.ac.uk/id/eprint/21105/>

Northumbria University has developed Northumbria Research Link (NRL) to enable users to access the University's research output. Copyright © and moral rights for items on NRL are retained by the individual author(s) and/or other copyright owners. Single copies of full items can be reproduced, displayed or performed, and given to third parties in any format or medium for personal research or study, educational, or not-for-profit purposes without prior permission or charge, provided the authors, title and full bibliographic details are given, as well as a hyperlink and/or URL to the original metadata page. The content must not be changed in any way. Full items must not be sold commercially in any format or medium without formal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The full policy is available online: <http://nrl.northumbria.ac.uk/policies.html>

This document may differ from the final, published version of the research and has been made available online in accordance with publisher policies. To read and/or cite from the published version of the research, please visit the publisher's website (a subscription may be required.)

바질 번스타인 이론을 통한 박물관 공간해석에 관한 연구

An Application of Basil Bernstein Theory to the Analysis of Museum Space

정회원 서 경 우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Seo, Kyung-Wook

정회원 김 창 성

협성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Kim, Chang-Sung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sociological theory about education by Basil Bernstein, and tries to adapt it to the interpretation of museum space. Reviewing the book, *Class Codes and Control* written by Bernstein in 1971, some spatial ideas, 'Classification and Framing', are collected and developed into a model by which designers could refine their designs at both conceptual and practical levels. It is further thought that this sociological thoughts could be established as a basis for the programing of museum space. For its application, British Museum and Sir John Soane's Museum, both are in London are examined. It is revealed that these museum spaces possess a different type of spatial rules, and thus impose different circulation logic to the viewers. It is concluded at the end that this kind of spatial logic can be applied back to the design process for better exhibition environment.

키워드 : 바질 번스타인, 사회학, 공간분류방식, 공간활용방식, 박물관

Keyword : Basil Bernstein, Sociology, Layout pattern, Spatial usage, Museum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건축가가 만드는 공간은 장차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될 인간의 생활을 예측하면서 계획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공간은 인위적 변형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예측된 방향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한다. 따라서 모든 인공적 공간은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틀이며 잘못된 예측은 부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를 초래한다. 마르쿠스(T. Marcus)는 *Buildings and Power*(1993)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지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것은 공간 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간적인 사회는 존재할 수 없고 반대로 비사회적인 공간 또한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공간 속의 사회적 원리를 주창해 온 힐리어(B. Hillier)는 건축물의 이러한 속성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마주침, 모임, 회피, 교류, 거주, 혐의 등은 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만드는 하나의 패턴이며 형상이다. 결국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거나 함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절된 패턴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상화시키는 작업이다.”(Hillier, 1999, p.29)

그 동안 위와 같은 관점에 공감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건축공간과 그 안에 담겨지는 사회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연구가 사례 중심적인 경우에는 범용성이 부족한 한정된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큰 틀의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물 디자인에 적용시키기에 너무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건축이나 실내디자인의 교육에 있어서 이론의 습득과정은 항상 딱딱한 기능 위주가 되거나 혹은 적용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으로 흐르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사회학자인 바질 번스타인(Basil Bernstein)의 저작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건축공간에 개념적 적용이 가능한 이론을 추출하고, 이것이 어떻게 기존 건물의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바질 번스타인(1924년-2000년)은 유대계의 영국 사회학자이자 언어학자로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체계가 어떻게 주어지는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통하여 형성되는지를 고찰하여 영국을 포함한 구미의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1971년 저작인 *Class Codes and Control*(계급, 코드, 통제)

은 이러한 사회교육학(Sociology of Education) 이론을 제시했던 대표적 저작이다.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번스타인은 이 책에서 사회 계층(class)별로 다른 사회 환경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는 코드(code)가 역시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계층별로 다른 사회적 영향력(control)의 상관관계가 구축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학적 견해를 전개시켰다. Class Codes and Control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교육학적 적용뿐만 아니라 건축공간에의 적용이 가능한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교육학적 이론이 물건의 배열이나 건축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례를 책 안에 서술하여 사회학과 건축공간 디자인의 접점을 모색한 독특한 사례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번스타인 이론의 유용성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그의 저작에 나타난 공간 해석의 틀을 이용하여 실제 건축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번스타인 저작에 나타난 공간의 배치방식(classification)과 이용방식(framing)에 관계된 사회학적 관점을 추출해 내고 이를 실제 건축물 공간의 해석에 적용 가능한 체계로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전시장 공간구성에 있어서 대조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 런던의 브리티쉬 뮤지엄과 존 손 뮤지엄(Sir John Soane Museum)의 공간을 사례로 하여 번스타인의 공간코드가 어떻게 실제 건축공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학 이론의 건축적 유용성을 밝히는 것이므로, 뮤지엄 전시방식의 통계적 분류를 통한 경향분석을 하기 보다는 가장 특징적인 두 개의 사례를 통하여 사회학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계급, 코드, 통제 (Class Codes and Control)

2.1 위계중심 가족과 인간중심 가족

번스타인에 따르면 가족구성 패턴은 그 성향에 따라 위계중심 가족(Positional Family)과 인간중심 가족(Personal Family)으로 나뉜다. 위계중심 가족은 의사 결정이 구성원의 공식 지위에 의해 만들어지고 가족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다. 가부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 형태가 가지는 특징에는 부모와 조부모 사이가 친밀하다는 것과 대화가 드물고 닫혀져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통제가 공식적인 지위에 기반을 둔 제한된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예: ‘닥쳐’, ‘나가’와 같은 명령조의 짧은 말들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위중심가족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언어발달은 늦어지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인간중심 가족(Personal Family)은 말 그대로 인간 위주의 사고를 하는 가정으로 모든 결정이 개인의 특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타고난 지위 보다는 획득한 지위가 더 우선시된다. 자연스럽게 열려진 대화가 많아지게 되며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반대 의견도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언어발달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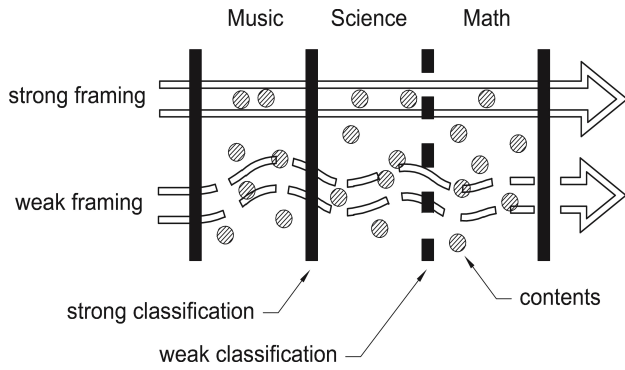
위의 두 가지 가족구성패턴을 공간의 성격으로 전환시켜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공간의 성격을 정의하는데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분류기준이 만들어진다.

우선 위치중심 공간(Positional Space)은 특정 기능이 한 위치에 부여되어 고정되어 있는 공간으로 어떤 사용자가 이용하더라도 그 공간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 공간이다. 주택을 예로 든다면 주방이나 식당과 같은 공간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인간중심 공간(Personal Space)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그 공간의 속성이 바뀌는 곳으로 주택의 거실이나 다용도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기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른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위치를 옮겨 다니게 된다. 건축물이 만드는 공간에 있어서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는 단순한 명칭이나 기능으로 그 공간을 이해하는 것 보다 더 폭 넓은 공간의 이해를 돕는다.

2.2 코드(Codes): 분류방식과 활용방식

번스타인은 분류방식(Classification)을 교육에 있어서 커리큘럼을 짜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목간의 구분이 강한 경우 각 과목은 강한 경계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잘 구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과목을 구분하는 분류방식이 약할 경우 그 경계벽은 얇아지고 투명해져서 과목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분류방식은 결국 내용물 간의 경계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하는 배치상(layout)의 문제이다. 이에 반하여 활용방식(Framing)은 교실에서의 교육방식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지식이 교육자로부터 전달되어 학생에게 습득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활용방식이 강하다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지 않는 내용의 구분이 확실함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활용방식이 약하다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이 매우 유동적이며 자유롭고 다양한 즉흥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교수가 같은 강의노트를 가지고 늘 같은 내용의 강의와 같은 내용의 질문, 그리고 같은 내용의 사례를 드는 교육을 매년 반복한다면 그의 교수법을 강한 활용방식(Strong Framing)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대로 매 강의시간마다 학생과의 소통을 통하여 강의내용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약한 활용방식(Weak Framing)에 해당한다. 결국 활용방식(Framing)은 분류방식(Classification)에 의해 구분된 내용물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키는가 하는 사용상(usage)의 문제이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분류방식은 공간적으로 정의되는 내용물의 ‘구분’에 관한 방법이고 활용방식은 시간 속에서 정의되는 내용물의 ‘선택’ 혹은 ‘취합’에 관한 방법임을 이해할 수 있다. 번스타인은 이러한 개념을 부록에서 ‘사물의 체계화와 컨트롤 양식에 관한



<그림 1> 분류방식(Classification)과 활용방식(Framing)

생각'(A note on the coding of objects and modalities of control)이라는 제목으로 사물과 공간의 이해를 위한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사물의 배치에 있어서 분류방식(Classification)이란 '배제의 법칙'(rules of exclusion)의 강함과 약함에 의해 정의된다. 이것이 강하다면 사물의 배열이 공간적으로 서로 확실히 구분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약하다면 사물들의 배열이 뚜렷한 구분 없이 섞여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사물의 배치에 있어서 활용방식(Framing)이란 배열된 사물들이 사용자에게 의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연관관계를 맺는 정도를 말한다. 이것이 강하면 공간 안에 배치된 사물들은 일정한 방식으로만 해석되고 활용되게 되고, 약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조합이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분류방식(C)을 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첫째, 그것이 강한가 약한가, 둘째, 그 배열의 규모가 작은가 큰가(x), 셋째, 그 배열이 고정적인가 가변적인가(y)이다. 또한 활용방식(F)을 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그것이 강한가 혹은 약한가(p)이다. 번스타인은 그 밖에도 주어진 맥락[context(c)]과 그 배열이 표현된 상황[realization(r)]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한 함수관계를 아래와 같이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f(c, r, C(x, y), F(p))$$

2.3 전시방식의 코드별 특성과 통제

번스타인이 말하는 두 개의 교육학적 코드, 즉 분류방식과 활용방식이 사물의 배치에 적용되는 예를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보다 발전시키면서 그 안에 숨겨진 사회적 역학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기위하여 각기 다른 코드를 가진 네 개의 화장실로 예를 들고 있다.

1. 첫 번째 화장실은 반짝거리는 깨끗한 타일과 흰색의 페인트로 마감된 잘 정돈된 공간이다. 세면대도 하나의 소품처럼 보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비누도 적절한 용기

에 잘 자리 잡고 있다. 흰색 수건이 깨끗하게 크롭 도금된 수건걸이에 반듯하게 놓여있고 화장지는 고급스러운 커버에 잘 가려진 채로 살짝 내비쳐져 있다.

2. 두 번째 화장실에는 선반위에 책이 놓여있고 첫 번째 화장실의 청결함에 대한 집착은 다소 완화되어 있다.

3. 세 번째 화장실에는 선반위에 책이, 벽에는 그림이 걸려있고 작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4. 네 번째 화장실에는 정리정돈에 대한 열망이 완전히 누그러져 있다. 벽에는 엽서들이 조잡하게 붙어있고 잡지나 신문들이 한 대 뒤섞여있다. 화장지 홀더는 부러져 있고 커버는 이미 떨어져 없으므로 화장지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다.

맨 처음 첫 번째 화장실에서 시작해서 네 번째 화장실로 옮겨 가면서 강했던 Classification의 배치기준은 점차 약해진다. 다시 말해서 '배제의 법칙'(rules of exclusion)이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화장실과 같이 배제의 법칙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은 물건들이 위계에 맞게 잘 구분되어 배치되어야 하며, 건물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공간은 건물 내의 다른 공간과 철저히 구분되어 관리될 것이다. 이러한 위계성에 근거한 구획과 분리의 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통제와 관리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수건을 아무데나 놓는다던지 비누의 위치를 바꾸는 등의 개인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는 시각적 공해를 일으키게 되며 쉽게 남의 눈에 띄게 된다. 결국 첫 번째 화장실의 사용방법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구체적이다. 이곳의 원칙은 한마디로 '모든 것은 있던 그대로'이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과거의 재생산'이다.

이제 화장실의 예를 통해서 번스타인의 활용방식의 개념을 논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분류방식(Classification)이 공간적 '배치방식'을 말해준다면 활용방식(Framing)은 시간적 '이용방식'을 말해준다. 더 자세히 말해서 활용방식은 분류방식에 의해 배치된 사물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맺게 되는 동적인 상호관계, 즉 커뮤니케이션의 틀에 의해 규정된다. 이것은 두 코드의 애초 정의에 있어서 분류방식이 정적이고 공간적인 커리큘럼의 과목별 구분 정도를 말해주는 반면에 활용방식은 동적이고 시간적인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선생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틀(frame)이 확정적인가의 정도를 말해주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러운 개념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장실의 예에서 활용방식은 화장실 안에 놓이는 사물의 이용방식이며, 동시에 건물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화장실과 화장실 이외 공간을 연계하는 공간활용방식이다.

이러한 활용방식(Framing) 패턴의 공간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자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 공간 밖에 있는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첫 번째 화장실에서 네 번째 화장실로 진행하면서 이 커뮤니케

이션 틀의 강도는 대체로 점차 약해진다. 첫 번째 화장실과 같은 공간은 잠금장치가 잘 구비된 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항상 잘 닫혀져서 소음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용 규범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은 외부에 머물고 있는 사람과 대화가 단절되어야 한다는 강한 활용방식(Strong Framing)에 기반을 둔 한 가지 방식의 고정된 커뮤니케이션 틀을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약한 분류방식(Weak Classification)을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화장실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며 잠금장치가 고장 나 있기 쉬운 것이다. 이곳에서는 화장실 안쪽의 사람과 바깥쪽의 사람이 서로 할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자연발생적인 행위가 즉흥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약한 활용방식(Weak Framing)의 행동패턴을 유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번스타인은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통제(control)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시작한다.

첫 번째 화장실은 모든 원칙들이 명백하게 눈에 보이고 구체적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동이 쉽게 눈에 띄게 된다. 이러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인 체계와 권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이 언뜻 비인간적이고 억압적으로 보이지만 통제의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곳은 전혀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강한 분류와 강한 구성(Strong Classification and Strong Framing)이 만들어 내는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존의 규칙을 깨지만 앎는다면 개인은 이곳에서 완벽하게 감시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통제 속의 자유로움’이 보장된 공간이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화장실의 규칙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워를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사회적 파워가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통제구조이다. 네 번째 화장실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약한 분류와 약한 활용방식(Weak Classification and Weak Framing)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언뜻 보기에는 호트리즘을 허용하는 자유로운 곳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에서는 사용자간에 암묵적으로 형성된 은밀한 규칙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초보 사용자는 무엇이 규칙을 어기는 것인지 처음에는 파악하기가 무척 힘들다. 예를 들어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고장 난 화장실 출입문 옆에 떨어져 있는 잠지가 누군가 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암묵적 표시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이 공간은 프라이버시보다 항상 주변의 감시 속에 머물게 되는 ‘자유로움 속의 통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속성을 가진다. 이 때, 사회적 파워를 가진 사람은 개인적 성향을 강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사회적 파워가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대비되는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통제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화장실 공간의 코드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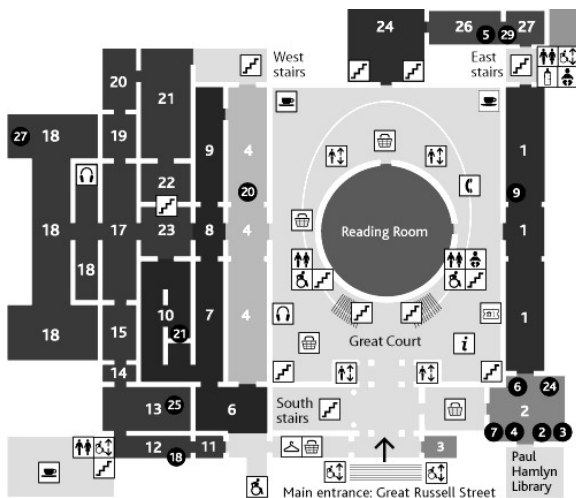
카테고리	평가항목	화장실 1	화장실 4
코드 (code)	분류방식 (Classification)	강함 (Strong)	약함 (Weak)
	활용방식 (Framing)	강함 (Strong)	약함 (Weak)
특성	기본원칙	구획, 분리	비구획, 혼합
	규칙	수가 많고 공개적	수가 적으나 은밀함
	공간적 특성	위치중심 (positional)	사람중심 (personal)
	시간적 특성	과거 반복 재생산	과거보다 현재중시
	행동패턴	객관적	주관적
통제 (control)	통제방법	체계적이고 위계적	자유롭고 즉흥적
	감시	피할 수 있음	피하기 어려움
	프라이버시	가능	어려움
	파워	파워 없는 사람에게 유리	파워 가진 사람에게 유리

3. 번스타인 이론의 적용

바질 번스타인은 그의 교육학적 논의에 활용되었던 이론적 틀을 가지고 사물의 배열과 이것이 놓이는 공간의 사회적 속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개념 단계에 머무르는 여타의 철학적 개념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공간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브리티쉬 뮤지엄(British Museum)과 존 손(Sir John Soane) 뮤지엄의 공간구조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번스타인 이론의 공간해석에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브리티쉬 뮤지엄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현대 뮤지엄의 원형이 되었던 건축물로서 세계의 많은 전시공간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현대 뮤지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구성 방식을 사회학 이론을 통해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존 손 뮤지엄은 한 건축가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유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시하였고 수집가가 사망한지 170년이 넘도록 당시의 전시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공공 뮤지엄이다. 이처럼 기존의 보편적 전시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전시공간을 사회학적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건축공간의 다양성에 대한 성찰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3장의 분석에서는 다수의 뮤지엄 공간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경향을 도출하기보다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대변하는 두 개의 뮤지엄을 해석함으로써 번스타인 이론의 확장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1 브리티쉬 뮤지엄

영국 런던의 브리티쉬 뮤지엄은 건축가 Robert Smirke 경(1780-1867)에 의해서 1823년에 디자인되고 1852년에 완공되었다. 네 개의 날개동이 중정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지어진 그리스 고전양식의 이 건물은 이후 중정에 Reading room이 지어지고 주변에 Weston hall, White wing, King Edward VII galleries, Duveen gallery 등이 지속적으로 덧붙여지면서 그 면적을 넓혀갔다. 2000년에는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가 디자인한 중정 전체를 덮는 그레이트 코트(Great court)가 들어서면서 현재의 모습을 완성하였다.(그림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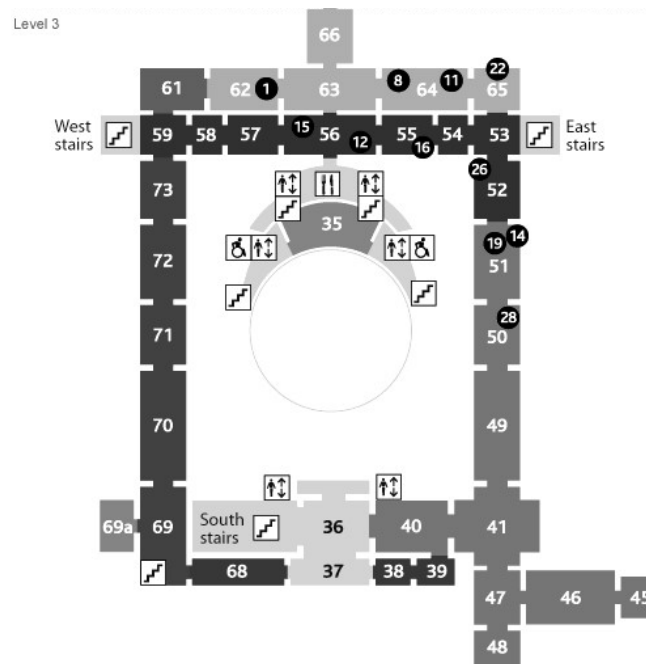
<그림 2> 브리티쉬 뮤지엄 1층(ground floor) 공간구조



<그림 3> 브리티쉬 뮤지엄 그레이트 코트(Great court)

이 그레이트 코트는 건물의 가운데에서 기존의 비좁았던 입구 로비공간을 대체하여 관람객들이 정보를 얻고, 대기하고, 음료를 마시고, 기념품을 사고, 각종 이벤트가 진행되는 다목적 공간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공간이 정해진 시대의 유물을 고정적으로 전시하며 변하지 않는 성격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번스타인의 위치중심공간(Positional Space)라고 정의할 때, 그레이트 코트는 한마디로 이용자에 의해 그 성격이 만들어지는 인간중심공간(Personal Space)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브리티쉬 뮤지엄은 위 평면도에서 각 전시공간이 번호로 구분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획된 독립공간마다 다른 시대의 유물을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으므로 그 전시물 '배치방식'에 있어서 강한 분류방식(Strong Classification)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한편, 위 1층 평면 원편의 전시공간 연결구조를 자세히 보면 몇 겹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시공간들이 여러 지점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왼쪽과 오른쪽의 단일 윙으로 구성된 전시공간도 중정홀과 여러 지점에서 연결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1층의 전시공간은 관람객이 전시물을 감상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동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관람객이 전시 내용을 즉흥적으로 선택하여 스스로의 동선을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시물 관람방식에 있어서 약한 활용방식(Weak Framing)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브리티쉬 뮤지엄 2층(first floor) 공간구조

브리티쉬 뮤지엄의 2층 또한 1층과 같이 각각의 구획된 공간에 다른 시대의 전시물이 놓여지는 강한 분류방식(Strong Classification)의 전시물 배치방식을 갖는다.(그림 4) 하지만 관람 동선에 있어서는 1층과는 전혀 다른 관람 패턴을 제시한다. 1층부에서 떨어져 있는 윙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었던 중앙홀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2층의 관람객들은 기본적으로 길이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 특히 좌우측 전시공간들의 경우 한 겹의 통로 구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곳으로 들어온 관람객은 순차적으로 전시물을 관람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지 않게 된다. 관객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을지의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브리티쉬 뮤지엄의 2층은 강한 활용방식(Strong Framing)의 관람패턴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바질 번스타인의 사회학 이론에 비추어 본 브리티쉬 뮤지엄의 전시 배치방식은 전체적으로 강한 분류방식(Strong Classification)의 공간적 코드를 따르지만, 관람방식에 있어서는 1층에서 약한 활용방식(Weak Framing), 2층에서 강한 활용방식(Strong Framing)의 시간적 코드를 따른다. 약한 활용방식에 의한 관람방식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람객에게는 편한 방식이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초보 방문객에게는 오히려 불편함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2층의 강한 활용방식은 초보 방문객에게 마음 편한 관람패턴을 제공한다. 결국 전시물과 전시공간에 대한 지식은 박물관 공간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파워이고, 이것은 표 1에서 제시한 코드와 파워의 상관관계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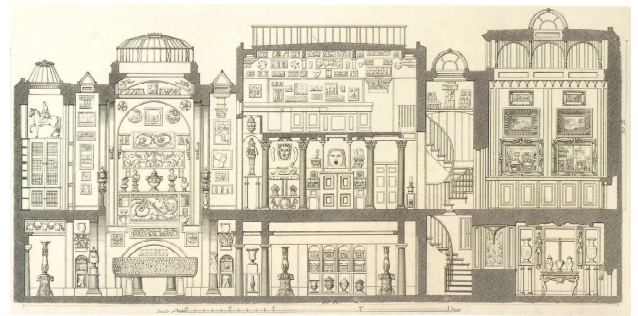
3.2 존 손(Sir John Soane) 뮤지엄

존 손 박물관은 영국의 건축가이자 로열 아카데미의 교수로 있던 존 손(John Soane)경이 평생 수집하였던 책, 그림, 건축모델, 회화, 조각 등을 자신의 주택에 전시하였던 것이 그의 이름을 따 사후에 박물관으로 남게 된 사례이다. 이 박물관의 특이한 점은 모든 전시품의 전시방식이나 위치와 같은 모든 공간적 구성이 존 손의 죽음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다른 박물관들이 전문가에 의해 전시물의 종류와 배치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존 손 뮤지엄에서는 한 수집가가 개인적 취향에 의해 평생에 걸쳐 구성해 놓은 전시패턴이 그의 죽음의 순간을 시점으로 멈춰진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존 손은 1830년대에 잡지 기고를 통해 이곳이 개인적인 수집 공간의 차원을 넘어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고 하였으나, 이곳이 자신의 주택이라는 설명은 늘 빠뜨리지 않았다.(John Elsner 외, 1994)

존 손의 첫 번째 주택은 Lincoln's Inn Field No.12라는 주소로 가진 곳으로 그림 5의 세 개 주거 중 맨 왼쪽 주거이다. 그는 스스로 재건축을 한 후 입주하였고, 점차 오른쪽으로 그의 주거를 확장하면서 No.13과 No.14를 계속 사들였다. 이후 No.13에 거주하면서 양쪽 주거의 후면은 전시공간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였고 전면부는 임대용 주거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세 개의 주거를 모두 박물관 측에서 재확보하여 존 손의 전시공간 뿐 아니라 주거공간을 재현하고 있다. 1837년에 존 손이 죽으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이 박물관의 전시 패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공간에 여러 시대의 여러 유물이 규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이다.(그림 6, 8)



<그림 5> 존 손 뮤지엄 1층(Ground Floor) 평면



<그림 6> 존 손 뮤지엄 횡단면도 (1835년)



<그림 7> 존 손 뮤지엄 지하층(Basement Floor) 평면

예를 들어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이탈리아 건물 기둥의 초석이 시리아와 그리스 본토에서 발굴된 건축물의 초석과 한 방에 전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고대의 향아리, 조각상 등도 별도의 구분된 전시공간 없이 주변의 빈 공간에 혼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존 손 뮤지엄은 그 전시물 '배치방식'에 있어서 약한 분류방식(Weak Classification)의 특성을 보여준

다. 이렇게 시대별, 혹은 작품의 성격별로 분류되지 않은 배치는 일반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기 쉬우나, 존 손의 평생에 걸친 예술작품 배치는 그렇게 간단히 무질서한 배치로만 넘길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즉, 단순히 즉흥적이고 무작위적이기만 한 분류방식과는 달리, 존 손 개인의 개념설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배치방식으로서 혼란과 무질서보다는 각각의 전시물들이 서로의 이질적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다.(John Britton, 1827)



<그림 8> 존 손 뮤지엄 1층 전시공간

존 손 뮤지엄을 관람함에 있어서 관람객들은 그림 5와 7의 평면도와 그림 6의 횡단면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조합의 관람 경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이용한 크기 않은 규모의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내 공간은 매우 풍부한 공간감을 연출하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출입문과 통로, 위아래 층으로 시선을 연장시켜주는 오프닝과 천창, 그리고 평면의 가운데 위치한 중정 등이 연출하는 느낌은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람에게도 항상 새로운 시선과 발견을 선사한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양함을 느끼게 해주는 실내공간 속에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를 가진 유물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치되어 있다. 벽면과 전시대 위뿐만이 아니라 시선이 좀처럼 가기 힘든 아치나 기둥이 천장과 만나는 꼭대기에도 주변과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유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배치된 유물들은 그것이 걸려있는 벽면 바로 앞에 서서 감상할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지나가면서 수직 수평 방향으로 뚫린 수많은 개구부를 통한 우연한 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물들은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다른 유물이나 건축공간과 겹쳐지면서 매우 다양한 시각적 감흥을 제공해 준다. 결국 존 손 뮤지엄의 관람방식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이동경로와 시선방향의 조합을 통해 자발적이고 즉흥적이

며 주관적인 약한 활용방식(Weak Framing)의 공간사용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 방문하는 이용객의 눈에는 전시패턴이 복잡하고 난해하며 무질서하게 느껴지겠지만, 내부 관리자처럼 전시패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두드러지지 않는 않아도 섬세하고 세련된 원칙이 반영된 공간으로 느껴질 것이다.

3.3 뮤지엄 전시공간의 사회학적 해석

앞서 살펴본 두 개의 뮤지엄은 영국의 런던에 위치하며 19세기 중반에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시공간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전시 패턴을 가지고 있다. 표 1에서 살펴본 번스타인의 공간적 코드에 이를 대입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브리티쉬 뮤지엄과 존 손 뮤지엄의 코드별 특징

카테고리	평가항목	브리티쉬 뮤지엄	존 손 뮤지엄
코드 (code)	전시분류방식 (Classification)	강함 (Strong)	약함 (Weak)
	관람방식 (Framing)	1층-약함 2층-강함	약함 (Weak)
특성	전시물 배열원칙	구획과 분리	구획속의 혼합
	관람규칙	가이드맵 배포 -공개적	개인취향반영 -은밀함
	공간적 특성	위치중심: 시대분류 따름	개인취향중심: 시대분류 없음
	시간적 특성	역사시기별로 과거 반복재생산	시대반영없이 현재취향반영
	행동패턴 (관람패턴)	1층은 주관적 2층은 객관적	주관적
통제	관람동선 통제방법	1층은 즉흥적 2층은 위계적	자유롭고 즉흥적
	관람객에 대한 주변의 감시	2층 각 전시실은 앞뒤 출입구만 개방되어 약함	여러방향으로 개방되어 강함
	관람객 프라이버시	1층은 약함 2층은 시선노출 감소로 강함	여러방향 시선노출로 약함
	파워(관객간)	2층은 파워없는 사람에게 유리	파워가진 사람에게 유리

표에 나타난 존 손 뮤지엄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코드(code)에 있어서는 약한 분류방식과 약한 활용방식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시대별 분류를 따르지 않고 존 손의 취향에 따라 섞여있는 전시방식을 취했고 공간의 활용방식에 있어서도 관람객들은 정해진 관람 동선이 없이 여러 곳으로 개방되어있는 각각의 전시공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 특성을 보면, 우선 비구획과 혼합의 전시구성 기본 원칙을 따르며, 분류상의 규칙은 존 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것이다. 또한 전시구성 패턴이 시대와 같은 역사 안에서의 ‘위치’보다는 존 손이라는 ‘사

람' 중심의 패턴을 따른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보다 현재를 중시하며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관람객에 대한 통제 방식을 보면, 관람동선이 자유롭고 즉흥적이지만 각 공간이 수평, 수직 방향으로 뚫려있는 이유로 시각적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관객에 대한 감시강도가 강하고, 이에 따라 관람객의 프라이버시는 약해진다. 이러한 공간은 일행으로 방문한 여러 명의 관람객이 함께 움직여야 할 경우, 그 집단의 우두머리나 뮤지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존 손 뮤지엄은 강한 사회적 파워를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공간이다.

표 2에 나타난 브리티쉬 뮤지엄의 특징은 존 손 뮤지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시 분류방식(classification)은 강하지만 관람방식(framing)은 1층에서 약하고 2층에서 강하다. 2층의 경우, 연속된 긴 통로로 이루어진 실연속 배치형의 전시공간 속에서 관람객은 일직선의 축 안에서 통제되는 강한 관람방식의 틀 안에 놓이게 된다. 이곳에서는 인접 전시실로 연결되는 앞뒤의 출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시선만 피하면 비교적 약한 강도의 감시에 노출된다. 다시 말해서 전후좌우로 출입구가 열린 1층에 비해 시각적 노출도가 작아질 것이고, 프라이버시는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전시공간은 누구나 정해진 동선을 따라 가지만 하면 되므로 파워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파워 있는 사람의 영향을 덜 받는 마음 편한 공간이다.

4. 결론 및 제언

일반적으로 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인문학 이론의 역할은 공간구획이 되기 이전 단계의 추상적인 개념화 작업에 도움을 주는 선에서 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바질 번스타인의 교육사회학 이론은 이러한 인문학 이론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공간 배치와 이용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실천적 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번스타인이 그의 저술에서 제시하였던 건축 공간의 사회학적 분류방식을 통해서 영국 런던에 있는 두 개의 대비되는 박물관의 전시 배치방식이 어떻게 관람객의 동선을 통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바질 번스타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사회교육학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번스타인 또한 그가 Class Codes and Control이라는 책을 썼던 1970년대의 구조주의(structuralism)의 경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언어학의 소쉬르, 흄스키, 인류학의 레비-스트로스, 언어학의 피아제, 사회학의 부르드외 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 한계를 번스타인도 역시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 현상을 너무 정적이고 고정적이며 생산주체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려하는 전체주의적 한계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던 그의 공간과 시간에 관한 사회학적 코드는 다소 이분법적인 구조주의의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의 출발 지점으로서의 구조주의의 역할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으며, (Christopher Tilley, 1990) 이러한 의미에서 번스타인의 위치중심 공간(Positional Space)과 인간중심 공간

(Personal Space)의 구분, 그리고 분류방식(Classification)과 활용방식(Framing)에 관한 논리는 공간배치와 공간이용에 관한 디자인 논의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건축공간의 디자인에 있어서 어떻게 주어진 기능들을 나누고 배치할 것인가 (Classification)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분산된 기능들을 공간적으로 연결시켜 이용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인가(Framing)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번스타인의 이론은 이러한 공간 디자인의 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건축이 단순히 현란한 외관과 프로그램의 수용이라는 일차원적 기능주의로 축소 해석되는 현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간의 사회학적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인문학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 Basil Bernstein, Class Codes and Control,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1
2. Bill Hillier, Space is the Mach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3. Christopher Tilley, Reading Material Culture, Blackwell, London, 1990. John Elsner, Roger Cardinal, The Cultures of Collect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4. David M. Wilson, The British Museum; A History, The British Museum Press, 2002
5. Helene Furjan, Glorious Visions: John Soane's Spectacular Theatre, Routledge, 2011
6. John Britton, The Union of Architecture, Sculpture, and Painting, Department of the History of Art, Oxford University Press, 1827
7. John Reeve, The British Museum; Visitor's Guide, The British Museum Press, 2003
8. Marjorie Caygill, The Story of the British Museum, The British Museum Press, 1981
9. Marjorie Caygill and Christopher Date, Building the British Museum, British Museum Press, 1999
10. Norman Jacobs, Behind the Colonnade, The History Press, 2010
11. Tim Knox, Sir John Soane's Museum London, Merrell Publishers Limited, 2009
12. T. A. Markus, Buildings and Power, Routledge, New York, 1993

[논문접수일자 : 2012.10.07]

[논문심사일자 : 2012.10.29]

[게재확정일자 : 2012.11.16]